

## 四象醫學의 痘因에 關한 考察

황민우 · 고병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사상체질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Abstract

### The Study on the Chronical Concept of Etiology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CM)

Hwang Min-Woo, Koh Byungh-H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 Kyung-nam, Korea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Seoul, Korea

#### 1. Objectives

This research was proposed to find out the chronological concept of etiology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 2. Methods

The related contents of etiology were selected in Je-Ma Lee's literatures such as 『Donguisusebowon-SaSangchobongyu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DSS), 『Donguisusebowon-GabObon(東醫壽世保元甲午本)』(DGO), 『Donguisusebowon-ShinChukbon(東醫壽世保元辛丑本)』(DSC), and the research was written in order to find out the chronological change of etiologic concept in SCM.

#### 3. Results and Conclusions

The chronological concept of etiology in SCM was as follows : There were comments that the cause of diseases was the imbalanced nature and emotion(性情偏急), the fault of human relationship(人事), and alcohol-sex-wealth-power(酒色財權) in DSS, and the imbalanced nature and emotion, exopathogen(外感), and endopathogen(內觸) in DGO. In the last, the causes of disease was set to the imbalanced nature and emotion in DSC.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SCM Etiology, Nature-Emotion-Qi(性 · 情氣)

### 1. 緒 論

四象醫學은 1894년 東武 李濟馬(AD. 1837-1900, 이하 ‘東武’로 약칭)가 저술한 『東醫壽世保元』을

통해서 창안된 의학이다.

四象醫學은 人間의 道德的 完成을 추구하는 儒學의 背景의 人間觀을 바탕으로 四象人, 즉 太陽人 · 少陽人 · 太陰人 · 少陰人에 따라서 固有의 生理論, 痘因論, 痘理論, 藥物論, 養生論으로 운용되는 의학체계이다. 四象人은 臟局大小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 生理의 現象이 다를 뿐 아니라, 痘因으로 작용하는 性 · 情氣도 다르며, 이에 따른 痘理의 現象도 다르며, 治療法과 養生法도

• 접수일 2009년 03월 06일; 승인일 2009년 03월 22일  
• 교신저자 : 황민우  
626-77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양신탱파스  
한의학전문대학원 사상체질과  
Tel : +82-51-510-8483 Fax : +82-51-000-0000  
E-mail : azure92@hanmail.net

다르다.『東醫壽世保元』에 의하면 四象人의 다른 生理의 인 現象을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性・情氣, 素證, 完實無病 등으로 접근하고 있고, 病因을 哀怒喜樂 性情의 暴動浪動으로 설명하고 있고, 病理의 인 現象을 각 四象人の 痘證으로 해석하고 있고, 治療를 위한 藥物에 관해서는 肺脾肝腎之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四象人에 따른 心身과 知行의 조절을 위한 養生法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四象醫學의 生理, 病理, 痘證 및 藥理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東武의 著作을 시대순으로 고찰하여 四象醫學의 病因에 관한 인식의 발전과정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東武의 著作인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을 중심으로 四象醫學의 病因에 관한 인식의 발전과정을 시대순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四象醫學의 病因에 관하여 몇 가지 새로운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對象 및 方法

본 고찰에서는 東武의 著作으로 알려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sup>1)</sup>, 『東醫壽世保元·甲午本』<sup>2)</sup>, 『東醫壽世保元·辛丑本』<sup>3)</sup>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草本卷으로 약칭하고,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은 甲午本이라 약칭하고,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은 辛丑本이라 약칭한다.

이상의 東武의 著作에서 四象醫學의 病因에 관한 내용을 모아서 정리하였고, 이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시대적인 순서를 고려하여 고찰하였다.

본 고찰에서 사용되는 表病, 裏病, 表病證, 裏病證, 表病症狀, 裏病症狀의 용어는 과<sup>4)</sup>의 개념 정의를 따랐다. 즉 少陰人에서는 表病은 脾受熱表熱病, 裏病은 胃受寒裏寒病이고, 表病證은 鬱狂證, 亡陽證, 太陽病厥陰證, 裏病證은 太陰證, 少陰證, 太陰病陰毒證이고, 表病症狀과 裏病症狀은 表裏病證에서 나타나는 개개 症狀의 개념이다.

## III. 本 論

四象醫學에서는 甲午本과 辛丑本을 통하여 四象人의 正氣에 해당되는 保命之主<sup>1)</sup> 또는 偏小之臟<sup>2)</sup>에 손상을 주는 “喜怒哀樂 性情의 偏急”<sup>3)</sup>을 病因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喜怒哀樂의 性情이 病因으로 작용하는데, 性氣가 작용하여 表病을 일으키고, 情氣가 작용하여 裏病을 일으킨다고 하였다<sup>4)</sup>.

- 1) 甲11-3 少陰人 以陽緩之氣 爲保命之主故 膽胃爲本而 膀胱大腸爲標也. 少陽人 以陰清之氣 爲保命之主故 膀胱大腸爲本而 膽胃之爲標也.  
甲13-8 太陰人 以呼散之氣 爲保命之主故 腸顧胃脘爲本而 腰脊小腸爲標. 太陽人 以吸聚之氣 爲保命之主故 腰脊小腸爲本而 腸顧胃脘爲標.
- 2) 예로서 少陰人の 痘證藥理에서 살펴보면, 鬱狂證과 亡陽證에서 胃와 脾를, 太陰證과 少陰證에서 胃와 脾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少陰人の 偏小之臟인 脾臟에 해당된다.  
6-38 胃家實病 其始焉 汗不出 不惡寒 但惡熱而其病垂危則 潑然微汗出 潮熱也 潑然微汗出潮熱者 表寒振發之力 永竭故也 胃竭之候也 脾約病 其始焉 身熱 汗自出 不惡寒而若其病垂危則 發熱汗多而惡寒也 汗熱汗多而惡寒者 裏熱撐支之勢 已窮故也 脾絕之候也.  
7-11 論曰 痘發於陰 而反下之云者 痘發於胃弱 當用藿香正氣散 而反用大黃下之之謂也 麻黃大黃 自是太陰人藥 非少陰人藥 則少陰人病 無論 表裏 麻黃大黃 汗下 元非可論 少陰人病 下利清穀者 積滯自解也 太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尤寬中湯 溫胃而降陰 少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官桂附子理中湯 健脾而降陰.
- 3) 2-17 頻起怒而頻伏怒 則腰脇 頻迫而頻蕩也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脇迫蕩不定 則肝其不傷乎. 乍發喜而乍收喜 則胸腋 乍闊而乍狹也 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腋闊狹不定 則脾其不傷乎. 忽動哀而忽止哀 則脊曲 忽屈而忽伸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脊曲屈伸不定 則腎其不傷乎. 屢得樂而屢失樂 則背顧 暈揚而暴抑也 背顧者 肺之所住着處也 背顧抑揚不定 則肺其不傷乎.  
2-22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 樂性極則喜情動 喜性極則樂情動 太陽人 哀極不濟則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侈樂無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知也.  
5-5 (中略) 蓋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所欲 喜怒哀樂偏着者 爲病 而但知脾胃水穀 風寒暑濕觸犯者 爲病故 其論病論藥全局 都自少陰人脾胃水穀中出來 而少陽人胃熱證藥 間或有焉 至於太陰人太陽人病情則全昧也.
- 4) 15-10 或曰 吾子論 太陽人解体病治法 曰戒深哀 遠嗔怒 修清定 論喧膈病治法 曰遠嗔怒 斷厚味 意者 太陽人解体病 重於喧膈病而 哀心所傷者 重於怒心所傷乎. 曰否. 太陽人喧膈病 太重於解体病而 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哀心深着則 傷表氣

여기서는 인간의 壽命을 결정하는 四象人の 正氣, 그리고 正氣를 손상시키는 病因에 관한 인식을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의 순서로 살펴보고, 이를 시대순으로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四象醫學의 壽命과 病因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1. 草本卷에서의 壽命과 病因에 대한 인식

### (1) 壽命과 喜怒哀樂

太少陰陽人으로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만 聖人과 다르게 衆人은 慾心(私欲)으로 인하여 四德을 발휘하지 못하면 鄙薄貪懶인이 된다<sup>5)</sup>. 太少陰陽人의 性氣로 인하여 偏大之臟은 有餘하게 되고, 偏小之臟은 不足하게 된다<sup>6)</sup>. 또한 太少陰陽人이 安身 또는 接人할 때 欲心과 放心으로 인하여 결국은 喜怒哀樂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게된다<sup>7)</sup>.

- 怒心暴發則 傷裏氣故 解体表證 以戒哀遠怒 兼言之也. 曰然則 少陽人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樂性 傷目督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喜性 傷耳腦顧氣. 樂情 傷肺胃脘氣乎. 曰然.
- 5) 草本卷 1-5 人趨欲心 有四不同 案禮而放縱者 名曰鄙人(太陽人)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少陰人)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少陽人)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太陰人)註 : 四德爲慾心所陷而有一面廢棄者 有二三四面俱廢棄者 有右明而左暗者 有左明而右暗者 四德爲慾心所擴而有一體充備者 有四體具微者 有善人信人者 有充實光輝者 有散而參差 直而高低 間間自別 層層不同 間間參差者 衆人也 層層高低者 賢良也 聖人衆人 萬殊也
- 6) 太少陰陽之兩偏長短 即性情之變化 具天而盈縮者也 聖人與衆人一同也 貪懦鄙薄之人 四隅漏缺 即私欲之桎梏 其人暴棄者也 聖人與衆人 萬殊也
- 6) 草本卷 2-3 太陽之性氣 若進之而又靜之 則非但聞見博也 威儀亦慎也 非但肺氣抑有餘也 肝氣亦補不足也 太陰之性氣 若靜之而又進之 則非但行檢成也 知慧亦密也 非但肝氣抑有餘也 肺氣亦補不足也 少陽之性氣 若舉之而又處之 則非但制度審也 度量亦明也 非但脾氣抑有餘也 胃氣亦補不足也 少陰之性氣 若處之而又舉之 則非但功績至也 經綸亦足也 非但腎氣抑有餘也 脾氣亦補不足也
- 7) 草本卷 2-4 太陽之安身 點於居處而 不點於事務 少陰之安身 點於事務而 不點於居處 少陽之安身 點於黨與而 不點於交遇 太陰之安身 點於交遇而 不點於黨與而 2-5 是故 太陽之欲心 許於居處而 不齋於事務 少陰之欲心 許於事務而 不許於居處 少陽之欲心 懶於黨與而 不侈於交遇 太陰之欲心 侈於交遇而 不懶於黨與 註: 有是點而有是慙 衆人皆然 惟知命者不然
- 2-8 太陽之接人 能於交遇 而不能於黨與 少陰之接人 能於黨與 而不能於交遇 少陽之接人 能於事務 而不能於居處 太陰之接人 能於居處 而不能於事務 2-9 是故 太陽之放心 驕於交遇而 不謐於黨與 少陰之放心 謐於黨與 而不驕於交遇 少陽之放心 傲於事務 而不侮於居處 太陰之放心 侮於居處而不傲於事務 註: 有

喜怒哀樂은 情欲의 四偏으로 酒色財權과 語謀行止를 절제하고 바르게 해야 하는데<sup>8)</sup>, 이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太少陰陽人의 偏小之臟을 손상시키게 된다<sup>9)</sup>. 그러므로 恭敬과 誠信을 통해서 喜怒哀樂의 中節에 힘써야 하며<sup>10)</sup>, 喜怒哀樂의 영향을 받게 되면 酒色財權의 不節에 이르게 된다<sup>11)</sup>.

그리고 인간의 타고난 德性인 仁義禮智의 善함을 다하고 喜怒哀樂의 中節을 잘 지키면 五臟을 편안하게 유지시켜서 오랫동안 長壽를 한다<sup>12)</sup>고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義理를 잘 지키지 못하고 慾利에 빠지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어 損傷을 입는다<sup>13)</sup>고 하였다. 그래서 賢人은 學問을 통하여 그 욕심을 잘 살펴서 타고난 德성의 선함을 잘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힘쓰기 때문에 많은 福을 누리면서 겸하여 長壽를

是能而有是惑 衆人皆然 有憲性者不然

2-11 太陽之怒心 若始有見於其人之有害則 終不至暴傷於怒 而亦不敢輕易驕人也 少陰之喜心 若始有見於其人之不利則 終不至暴傷於喜 而亦不敢輕易謫人也 少陽之哀心 若始有見於其事之難與則 終不至暴傷於哀 而亦不敢輕易傲人也 太陰之樂心 若始有見於其居之不好則 終不至暴傷於樂 而亦不敢輕易侮人也

8) 草本卷 3-1 健剛柔順 性理之四偏也 喜怒哀樂 情欲之四偏也 性理之偏 行之而察中焉則 求也 情欲之偏 行之而察節焉則 得也 欲求性理之偏者 富貴顯達 雖則求之 而不可以汲汲也 貧賤困窮 虽則達之 而不可以戚戚也 欲得情欲之偏者 財權酒色 雖則難節 而不可以不節也 語謀行止 雖則難正 而不可以不正也.

9) 草本卷 3-3 頻起怒而頻伏怒則 兩脇暴盛而暴衰也 兩脇暴盛而暴衰則 肝血傷也 乍發喜而乍收喜則 胸腔暴闊而暴窄也 胸腔暴闊而暴窄則 脾氣傷也 忽動哀而忽止哀則 腎脊暴伸而暴屈也 腎脊暴伸而暴屈則 腎精傷也 屢得樂而屢失樂則 肩臂暴揚而暴抑也 肩臂暴揚而暴抑則 肺神傷也

3-4 怒極者 怒之不勝其忿 而悲哀動中則 肝魂亂也 喜極者 喜之長往不返 而逸樂無已則 脾靈亂也 哀極者 哀之極渴瘋思 而恐憤守失則 腎志亂也 樂極者 樂之必充侈心 而喜嗜無節則 肺意亂也

10) 草本卷 3-10 是故恭敬也已矣 誠信也已矣 喜怒哀樂 未發而預備者 非恭敬之道乎 喜怒哀樂 既發而不強摶者 非誠實之德乎 未發而預備者 非中之謂乎 既發而不強摶者 非節之謂乎

11) 草本卷 11-20 少陽人 一偏袁心 輕銳事務而忘却居處 故少陽人尤不可好色 太陰人 一偏樂心 輕銳居處而忘却事務 故太陰人尤不可好貨 太陽人 一偏怒心 輕銳交遇而忘却黨與 故太陽人尤不可好酒 少陰人 一偏喜心 輕銳黨與而忘却交遇 故少陰人尤不可好權

12) 草本卷 3-11 人非堯舜 何能仁義禮智 事事盡善 人非孔孟 何能喜怒哀樂 節節必中 虽不善也 不太不善則已 近於善矣 虽不節也 不太不節則 已近於節矣 如此做去 則 自然避凶 趁吉免危 而祇安五臟完 而福壽至矣.

13) 草本卷 5-12 義理之欲 始雖困免 而終於爽快 是一屈而又伸也 慾利之欲 始亦汨沒 而終亦狼狽 再失而又再傷也

할 수 있으나, 道教의 老子처럼 홀로 세상과 동떨어져 편안함만을 추구하여 혼자서만 복을 누리고 100세를 영위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sup>14)</sup>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太少陰陽人은 타고난 仁義禮智의 德性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喜怒哀樂의 慾心에 빠지게 되면 鄙薄貪懶人이 되며, 이는 酒色財權의 不節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 (2) 壽命과 人事

人事에 있어서 減壽要因으로 “嬌奢, 懶怠, 偏急, 貪慾”을 保命要因으로 “簡約, 勤幹, 警戒, 聞見”을 제시하고 있다<sup>15)</sup>. 이 두 요인은 모두 酒色財權의 不節에서 기인한다<sup>16)</sup>.

또한 夫婦, 長幼, 君臣, 父子 간의 사회윤리와 직업 또는 지역에 따른 요인도 수명에 영향을 주며<sup>17)</sup>, 이 또한 “人之臟氣 內存精靈 外應事物”이라고 하여 人間의 脏氣가 이미 酒色財權으로 손상을 입은 뒤에 人事의 不節(居處荒涼, 行身鬱蔽, 用心煩滿, 事務錯亂)로 더욱 손상된다고 보았으며<sup>18)</sup>,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9)</sup>.

14) 草本卷 5-13 賢人之力學 以慾察理 而以身先物 抑損揚益 開物成務 七八九十壽者 百福而兼壽也 老氏之閑靖 畏慾害己 退處窮僻 戒虧保盈 遺世獨立 一百零壽者 一福而高壽也.

15) 草本卷 6-1 嬌奢減壽 懶怠減壽 偏急減壽 貪慾減壽  
6-5 簡約保命 勤幹保命 警戒保命 聞見保命

16) 草本卷 6-2 為人嬌奢 必耽多色 為人懶怠 必嗜酒食 為人偏急 必擅權寵 為人貪慾 必慾貨財  
6-6 為人簡約 必遠侈色 為人勤幹 必節酒食 為人警戒 必避權寵 為人聞見 必清貨財

17) 草本卷 6-9 天下有居 夫婦治居 天下有群 長幼治群  
天下有交 君臣治交 天下有事 父子治事  
6-10 居處淫侈 夫不庇婦 行身謀食 長不師幼 用心圖權 君不擇臣 事務籠財 父不教子

6-11 居處荒涼 色之故也 行身闔蔽 酒之故也 用心煩滿 寢之故也 事務錯亂 貨之故也

6-12 山谷之人 味於聞見而易為貪慾 市井之人 忽於簡約而易為驕奢 農耕之人 慗於勤幹而易為懶怠 讀書之人 慢於警戒而易為偏急

6-13 山谷之人 有聞見則 必得高年 市井之人 能簡約則 自然吉祥 農耕之人 勉勤幹則 永保康寧 讀書之人 恒警戒則 終享福壽

18) 草本卷 6-14 問 居處行身 夫婦長幼等事 有關疾病乎 曰 人之臟氣 內存精靈 外應事物 為酒色所傷者 既傷於酒色 又困於居處行身 所以受病甚酷.

19) 草本卷 6-16 疲憊虛耗 荒涼之疾 打撲損傷 闔蔽之疾 積聚內癰 煩滿之疾 癲癇狂病 錯亂之疾 咳嗽喘端 嬌奢之疾 傷食傷暑 懶怠之疾 中風 偏急之疾 眼病鼻

그러므로 酒色財權에 해당되는 飲食, 衣服, 筋力, 財物을 恭敬하면 心氣가 長遠하여 長壽하게 되고, 이를 慵慢하면 心氣가 短促하여 天折하게 된다고 하였다<sup>20)</sup>.

이상과 같이 壽命에 영향을 주는 痘因으로 작용되는 “嬌奢, 懶怠, 偏急, 貪慾”, 사회윤리, 직업 또는 지역에 따른 人事의 不節은 모두 酒色財權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3) 壽命과 命脈實數

命脈實數는 太少陰陽人에서 偏小之臟이 偏大之臟의一半에 해당되는 것을 이르며, 命脈實數를 넘게 되면 죽게 된다고 하였으므로<sup>21)</sup>, 이 命脈은 太少陰陽人의 偏小之臟의 脏氣를 일컫는다. 이 命脈實數의 단계에 따라 건강상태가 달라진다고 하여, 이를 八截로 나누고 각 截에 初中終의 3가지 度數로 구분하여 모두 二十四截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sup>22)</sup>. 八截 가운데 命脈實數의 第五截에서 第八截에 해당이 되는 外感, 內傷, 牢獄, 危傾이 병이 있는 단계에 해당이 되며, 특히 第五截인 外感은 表氣外虧한 상태이고, 第六截인 內傷은 裏氣內損한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비록 命脈이 손상이 되더라도 64세 전에는 生息充補之道가 있어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

### 塞 貪慾之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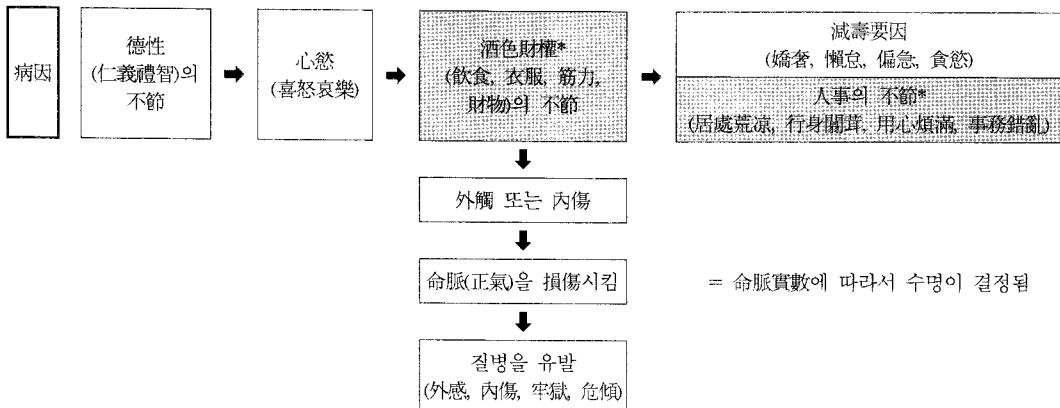
20) 草本卷 6-17 凡人恭敬則益壽 慵慢則減壽 飲食 以能忍飢而不貪食 為恭敬 衣服 以能忍寒而不擇溫 為恭敬 筋力 以能節勞而不便逸 為恭敬 財物 以能忍乏而不苟得 為恭敬 賽恭則心氣長遠 慵慢則心氣短促 長遠者壽 短促者不壽 裡勢然也

6-19 凡人簡約而勤幹 警戒而聞見 四體圓全者 自然上壽 聞見而警戒 勤幹而嬌奢 一體久缺者 次壽 嬌奢而勤幹 偏急而聞見 二體久缺者 恭敬則壽 慵慢則夭

21) 草本卷 7-2 太陽人 肝臟十分圓全 而與肺相敵者 極完境人也 一半虧缺 而與肺讓倍者 極壞境人也 過此則死 以此推之 太陽人 肝臟部一半 為命脉實數 他臟倣此

22) 草本卷 7-3 臟部一半 命脈實數 平分八截 第一截 名曰神仙 度數言其最高也 第二截 名曰清朗 度數言精神清朗也 第三截 名曰快輕 度數言一身快輕也 第四截 名曰康寧 度數言百體康寧也 第五截 名曰外感 度數言表氣外虧也 第六截 名曰內傷 度數言裏氣內損也 第七截 名曰牢獄 度數言其病如入獄也 第八截 名曰危傾 度數言其命途危境也 命脉之理 微忽難見 難見則難言 略分八截 著而明之 使難見者易見 難言者易言 每一截 亦各有初中終度數 八截又可分爲二十四截

Fig. 1. 草本卷에서의 壽命과 痘因에 대한 인식



\* 주요한 病因으로 인식

어감에 따라 生息充補之道가 줄어들게 된다. 보통 사람은 40세의 命脈에 따라, 極壽人은 64세의 命脈에 따라 그 수명이 결정된다고 하였다<sup>23)</sup>.

命脈에 해당되는 偏小之臟의 脏氣는 손상이 되더라도 藥餌와 調養을 통해서 生息充補之道의 도움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瘤病을 얻으면 오랜 기간 동안 痘變을 거쳐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24)</sup>.

이러한 太少陰陽人의 命脈에 酒色財權으로 內傷 또는 外觸하여 偏小之臟에 손상을 끼치게 된다고 하여<sup>25)</sup>, 酒色財權을 직접적인 痘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酒色財權이 壽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酒色財權의 경계를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다<sup>26)</sup>. 결국 이러한 酒色財權의 不節은 心術의 善惡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慾心을 버리고 善心을 잘 발휘하여야만 命脈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sup>27)</sup>.

- 23) 草本卷 7-4 命脉 雖間有損傷 六十四歲前 皆有生息充補之道 但老年不如壯年 少年不如幼年 少年生息得幼年四分之三 壯年生息得幼年四分之二 老年生息得幼年四分之一 故平人以四十歲為中年 極壽人以六十歲為中年 幼年少年三十二年及壯年前八年 當日血氣之所損傷者雖大 而當日所生息者輒三四倍有剩餘而充補之 自壯年始八年以後 當日生息亦有剩餘 而若當日損傷大則 當日充補不能快恰 至於老年則 當日生息亦不無稍餘 而當日損傷稍異平常則 當日充補不能支持 凡人少年血氣之勇猛 不能復用於四十以後者 非心志之勇猛不及於四十以前也 乃血氣之所充補者 不及於四十以前之故也 蓋四十歲血氣之所充補命脈者 半減也 故平人 以四十歲所有命脉 占病之吉凶 六十四歲 血氣之充補命脈者 全減也 故極壽人 以六十四歲所有命脉 占壽之長短

24) 草本卷 8-1 少年痼病支離不愈 命脉在危傾初分者 忽一日嬰然恭散 改過遷善 藥師扶其正氣 調養培其真源 千辛萬苦 經歷病變 至中年四十 命脉稍復於內傷度數者 極善調養則 九十壽非難 如此者 其壽必自上天而降也 身體膚潤之被損傷者 一二月內完合甚易 臟部其液之被損傷者 十數年內完合極難 是故 中年四十命脉在牢獄未分者 自非清淨道土之心而別被調治則十分必危 若當下不死而能經歷病變 命脉稍復則七十壽亦可期 然道士清淨之調治而豈容易哉 如此者千萬人中或一人

8-2 四十 命脉在內傷中分者 以平人尋常之心而略存警畏則 其壽皆過六十 善調養則 八九十壽可期

若四十命脉在牢獄度數則不以賢者止足不危之心謹復調養則五十前後必死東醫寶鑑小兒篇曰小兒有變蒸之病勿藥有喜此變蒸云者卽病變也小兒完實者無之虛弱者有之病變有自淺而深者有自重而輕者此死生之辨也大人亦然不幸得痼病者雖十分必調理歷十餘年病變然後方為完人

8-3 傳曰 天下國家可均也 餘祿可辭也 白刃可蹈也 中鍼不可  
庸不可能也 於此而倣之曰 一死可能也 毒藥可能也 不  
灸可能也 痘變不可能也 此言雖陋足以喻病變之難  
亦難乎 若清淨長遠之人 生發好疾 其得調理 經歷五六  
六年十餘年二十年病變 而終爲完人則 其壽豈非自天而降  
乎 且完實無病者 觀其有病者之病變極苦之狀 暫然預  
戒 不甚二憮 不復迺酒色 不陷於痼疾重罪 則不亦善策乎

25) 草本卷 7-1 太陽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 皆損肝  
故太陽人 以肝臟剝削 為命脈長短 太陰人 財權酒  
色 凡百內傷外觸 皆損肺 故太陰人 以肺臟剝削 為  
命脈長短 少陽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 皆損腎  
故少陽人 以腎臟剝削 為命脈長短 少陰人 財權酒  
色 凡百內傷外觸 皆損脾 故少陰人 以脾臟剝削 為  
命脈長短

26) 草本卷 11-21 酒色財氣 自古所戒 人間陷弃 酒色無  
度者 少年促壽 財氣不返者 中年促壽 一身夭秩 酒  
色爲財氣尊卑 全局殃殃 財氣爲酒色伯兄 從酒則遺  
落世事 感色則居處窘迫 酒毒色敗 與酒患色憂 兩  
相均敵 此所以酒色之爲害最大

27) 草本卷 11-28 問 人之心術善惡 有關壽夭乎 曰 一國之中心術善者持國則 一國心氣皆活潑而人民多

이상과 같이 草本卷에서는 少陰陽人의 壽命은 命脈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 命脈을 손상시키는 痘因으로 喜怒哀樂, 人事의 不節, 酒色財權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痘因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酒色財權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酒色財權이 內傷 또는 外觸하여 少陰陽人의 命脈을 손상시킴으로써 모든 질병을 일으키므로 가장 중요한 痘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少陰陽人은 喜怒哀樂의 心慾으로 인하여 酒色財權의 不節이 야기되며, 酒色財權의 不節로 인하여 人事의 不節(居處荒涼, 行身闊革, 用心煩滿, 事務錯亂)이 야기된다. 그러므로 酒色財權이 內傷 또는 外觸하여 命脈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결국 酒色財權에 해당되는 飲食, 衣服, 筋力, 財物의 不節과 人事의 不節이 痘因으로 작용하여 內傷으로 裏氣內損하거나 外感하여 表氣外虧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草本卷에서는 少陰陽人의 命脈에 손상을 주는 痘因으로 喜怒哀樂의 心慾에 대한 인식은 이미 있었으나 喜怒哀樂의 心慾을 질병의 주요한 痘因으로 설명하지 않고, 酒色財權과 人事의 不節을 주요한 痘因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外感, 內傷”과 “表氣, 裏氣”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기존 한의학적인 痘因과 表裏의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한의학에서 痘因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喜怒哀樂의 心慾과 酒色財權 및 人事의 不節을 草本卷을 통해서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2. 甲午本에서의 壽命과 痘因에 대한 인식

甲午本과 辛丑本은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太陽人病證藥理, 「廣濟說」, 「四象

壽心術患者持國則一國心氣皆窘促而人民多夭一邦一鄉一家亦然

11-30 凡病人在痼病久病後悔多善心發以療病為第一事件其他千萬事為第二事件如此者命脉雖甚弱庶有回生應之也病人在痼病久病慾心多後悔少喜人奉奉以療為第二事件以許多豪侈外慾為第一件事如此者命脉雖不甚弱心無回生之望也

人辨證論」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두 著書의 公通된 壽命과 痘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두 著書의 壽命과 痘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은 따로 구분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 (1) 壽命과 喜怒哀樂

甲午本과 辛丑本은 草本卷에서와 마찬가지로 喜怒哀樂의 心慾을 痘因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草本卷과는 달리 少陰陽人의 주요한 痘因으로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痘의 原因이 외부적으로 오는 風寒暑濕의 外邪로 인한 外感이나 脾胃水穀으로 인한 內觸으로 인하여 오는 것 뿐 아니라, 喜怒哀樂의 偏着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up>28)</sup>.

저자는 이미 拙稿<sup>5</sup>에서 東武의 喜怒哀樂의 性·情氣를 四象人의 臟局大小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와 臟局大小의 偏差를深化시키거나 臟局을 손상시키는 心慾으로서의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로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중에서도 臟局大小의 偏差를深化시키거나 臟局을 손상시키는 心慾으로서의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가 바로 四象醫學의 痘因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痘因으로 작용되는 喜怒哀樂의 性·情氣를 「性命論」, 「四端論」의 순서대로 통해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性命論」에서는 天人性命의 구도 안에서 好善之心, 惡惡之心, 邪心, 慵心을 언급하고 있다.<sup>29)</sup> 이 중에서 天機를 聽視嗅味하는 耳目鼻口의 好善之心과 人事를 達合立定하는 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은 모두다 堯舜과 衆人이 차이가 없는 선천적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頷臆臍腹의 驕矜伐夸之心(邪心)과 頭肩腰臀의 奪侈懶竊之心(怠行)은 후천적인 存心養性, 修身立命을 통하여야 堯舜의 知와 行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堯舜과

28) 甲5-2 (中略) 古之醫師不知心之愛惡所欲喜怒哀樂偏着者爲病而但知脾胃水穀風寒暑濕觸犯者爲病故其論病論藥全局都自少陰人脾胃水穀中出來而少陽人胃熱證藥間或有焉至於太陰人太陽人病情則全味也。

29) 1-23 人之耳目鼻口好善無雙也人之肺脾肝腎惡惡無雙也人之頭肩腰臀邪心無雙也人之頭肩腰臀怠心無雙也。

衆人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性命, 즉 知行의 차원이라고 하였다.<sup>30)</sup> 인간의 道德과 性命은 知行에 따라서 聖人과 衆인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慧覺, 資業에 따라서 生死가 달라지므로<sup>31)</sup>, 性命과 知行이 인간의 壽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知-性(知人不明)과 行-命(行身不誠) 그 중에서 그 사람의 壽命과 더욱 관련이 깊은 것은 行이라 할 수 있는데, 善行이나 惡行이나에 따라서 命數가 정해진다고 보았다<sup>32)</sup>.

「性命論」을 통해서 東武는 인간의 道德과 性命이 올바른 知行의 여부에 따라서 聖人과 衆인의 차이가 날 뿐 아니라, 慧覺과 資業을 통해서生死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性命과 知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인간의 후천적인 知行을 통한 도덕적인 노력의 여부가 그 壽命과 직결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四端論」에서는 臟理와 心慾으로 少陰陽人과 鄙薄貪惱人을 구분하였다.<sup>33)</sup> 少陰陽人과 鄙薄貪惱人의 구분은 각각 臟局大小와 心慾으로 구분된다. 少陰陽인의 臟局大小는 天理의變化로서 天稟之已定의 선천적인 차원으로 설명되며,

30) 1-25 耳目鼻口 人皆可以爲堯舜 頤瞻臍腹 人皆自不爲堯舜 肺脾肝腎 人皆可以爲堯舜 頭肩腰臀 人皆自不爲堯舜.

1-26 人之耳目鼻口 好善之心 以衆人耳目鼻口論之而 堯舜未爲加一鞭也 人之肺脾肝腎 惡惡之心 以堯舜肺脾肝腎論之而 衆人未爲少一鞭也 人皆可以爲堯舜者 以此 人之頤瞻臍腹之中 誣壯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 然後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下 囂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 然後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不爲堯舜者 以此.

31) 1-30 天生萬民 性以慧覺 萬民之生也 有慧覺則生無慧覺則死 慧覺者 德之所由生也.

1-31 天生萬民 命以資業 萬民之生也 有資業則生無資業則死 資業者 道之所由生也.

1-34 好人之善 而我亦知善者 至性之德也 惡人之惡 而我必不行惡者 正命之道也 知行積 則道德也 道德成 則仁聖也 道德非他 知行也 性命非他 知行也.

32) 1-35 或曰 舉知而論性 可也 而舉行而論命 何義耶 曰 命者 命數也 善行 則命數 自美也 惡行 則命數自惡也 不待卜筮 而可知也 詩云 水言配命 自求多福 卽此義也.

33) 2-1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

2-2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 懈人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

仁義禮智의 四臟之氣, 즉 四端을 擴充하게 되면 浩然之氣가 肺脾肝腎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鄙薄貪惱의 心慾은 人慾之闊狹은人事之修不修의 후천적인 차원으로 설명되며, 鄙薄貪惱의 一心之慾, 즉 仁義禮智를 棄하고 私放逸欲으로 빠지는 것을 明辨하면 浩然之理가 心에서 나온다고 하였다<sup>34)</sup>. 그러므로 聖人이나 衆인의 臟理(臟局大小)와 才能은 선천적으로 같은 것이며, 聖人과 衆인의 다른 것은 후천적인 心慾의 有無로 달라지게 된다.<sup>35)</sup>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喜怒哀樂 性·情氣의 작용에 따라 臟局의大小, 즉 臟局 기능의 强弱이 정해지며, 이는 天稟之已定으로 선천적인 차원이다.<sup>36)</sup>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氣로 인하여 大한 臟局이 형성되고,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情氣로 인하여 小한 臟局이 형성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臟局大小에 따라서 四臟에서 나오는 기운을 浩然之氣<sup>37)</sup>이며, 이는 곧 肺氣, 脾氣, 肝氣, 腎氣의大小가 결정

34) 2-3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象也.

2-4 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一同也 鄙薄貪惱之心地清濁四個中 有萬不同 人慾之闊狹也 聖人與衆人萬殊也.

2-5 少陰陽之短長變化 一同之中 有四偏 聖人所以希天也 鄙薄貪惱之清濁闊狹 萬殊之中 有一同 衆人所以希聖也.

35) 2-6 聖人之臟 四端也 衆人之臟 亦四端也 以聖人一

四端之臟 處於衆人萬四端之中 聖人者 衆人之所樂也 聖人之心 無慾也 衆人之心 有慾也 以聖人一無慾之心 處於衆人萬有慾之中 衆人者 聖人之所憂也.

2-7 然則天下衆人之臟理 亦皆聖人之臟理 而才能亦皆聖人之才能也 以肺脾肝腎 聖人之才能 而自言曰 我無才能云者 貳才能之罪哉 心之罪也.

36) 2-10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遠散 則氣注肺 而肺益盛 怒情促急 則氣激肝 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 則氣注脾 而脾益盛 哀情促急 則氣激腎 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 而樂情促急 喜性廣張則氣注肝 而肝益盛 樂情促急 則氣激肺 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 而喜情促急 樂性深確 則氣注腎 而腎益盛 喜情促急 則氣激脾 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37) 2-8 浩然之氣 出於肺脾肝腎也 浩然之理 出於心也 仁義禮智 四臟之氣 擴而充之 則浩然之氣 出於此也 鄙薄貪惱 一心之慾 明而辨之 則浩然之理 出於此也.

된다. 결국 四象人의 臟局大小를 형성하여 四臟기운의大小偏差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선천적인性·情氣에 해당한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형성된 臟局의大小는 그 자체만으로는 병리적인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형성된 臟局大小로 인하여 臟局에서 나오는 肺氣, 脾氣, 肝氣, 腎氣<sup>38)</sup>의大小偏差에 후천적인性·情氣의 작용인 哀氣, 怒氣, 喜氣, 樂氣<sup>39)</sup>의順動, 逆動과 상호작용하여 臟局大小의偏差가 심해지거나偏小之臟의 손상을 야기하여 痘證이 유발되게 된다. 후천적인喜怒哀樂의性·情氣는 그 사람의 知行과人事之修不修와 관련된 心慾의 關狹에 따라 과도한順動 또는 逆動으로 인하여 臟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후천적인喜怒哀樂의작용인哀氣, 怒氣, 喜氣, 樂氣가 과도한順動<sup>40)</sup> 또는 逆動<sup>41)</sup>에 따라서 이미 형성된 臟局의大小로부터 나오는 肺氣, 脾氣, 肝氣, 腎氣에大小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痘證을 유발하게 된다. 과도하게順動하여 臟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후천적인喜怒哀樂의性氣에 해당되며, 이는 「臟腑論」과 「病證論」에서 表氣와 관련되어 설명되고 있다. 逆動하여 臟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후천적인喜怒哀樂의情氣에 해당되며, 이는 「臟腑論」과 「病證論」에서 裏氣와 관련되어 설명되고 있다.<sup>42)</sup> 이러한 후천적인性氣와情氣

38) 2-11 肺氣直而伸 脾氣栗而包 肝氣寬而緩 腎氣溫而畜

39) 2-13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40) 2-15 哀怒之氣 順動 則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 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順而下降

41) 2-16 哀怒之氣 逆動 則暴發而竝於上也 喜樂之氣 逆動 則浪發而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竝於上 則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竝於下 則脾肺傷

42) 4-12 是故 耳必遠聽 目必大視 鼻必廣嗅 口必深味 耳目鼻口之用 深遠廣大 則精神氣血 生也 淺近狹小 則精神氣血 耗也. 肺必善學 脾必善問 肝必善思 腎必善辨 肺脾肝腎之用 正直中和 則津液膏油 充也 偏倚過不及 則津液膏油 燥也.

4-17 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膻中 光明瑩徹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忖 領臆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

15-10 或曰 吾子論 太陽人解体病治法 曰戒深哀 遠曠怒 修清定 論噎膈病治法 曰遠曠怒 斷厚味 意者 太陽人解体病 重於噎膈病 而哀心所傷者 重於怒心所傷乎. 曰否. 太陽人噎膈病 太重於解体病 而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哀心深着則傷表氣 怒心暴發則傷裏氣故 解体表證 以戒哀遠怒 兼

에서 性氣가 極하여 情氣가 動한 경우에 臟局에 더 심한 손상을 끼쳐 壽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 후천적인性氣보다는 후천적인情氣를 더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sup>43)</sup>

결국 선천적인臟理(臟局大小)는 선천적인喜怒哀樂의性·情氣의작용으로 설명되어지며, 후천적인心慾은修不修에 따라 臟局에 영향을 미치는 후천적인喜怒哀樂의性·情氣의작용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性命論」에서 天機의 好善之心을 聽視嗅味하는 耳目鼻口와 人事의 惡惡之心을 達合立整하는 肺脾肝腎, 그리고 「四端論」에서 人稟臟理로서 少陰陽人이 天稟으로 태어나는 肺脾肝腎의 臟局大小는 누구나 聖人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선천적인臟理에 해당이 된다. 「性命論」에서 存心養性하여 邪心을 경계하여야만 聖人의 知를 行할 수 있는 領臆臍腹과 修身立命하여 懈行을 경계하여야만 聖人의 行을 行할 수 있는 頭肩腰臀, 그리고 「四端論」에서 人趨心慾으로서 人事之修不修에 따라 聖人이 될 수도 있고, 鄙薄貪懦인이 될 수도 있는 心慾은 후천적인心慾에 해당이 된다. 선천적인臟局大小의 形成은 天機와 人事에 해당되는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에 의한 선천적인喜怒哀樂의性·情氣의작용에 의하며, 후천적인心慾은 性과命에 해당되는 領臆臍腹과 頭肩腰臀의 知行에 의한 후천적인喜怒哀樂의性·情氣의作用에 의한다. 이 가운데서 후천적인心慾과 관련된性命과 知行을 잘못하게 되면 후천적인性·情氣가 과도하게順動 또는 逆動하여 선천적인臟局을 손상시킴으로써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 이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이상의 선천적인喜怒哀樂의性·情氣와 후천적인喜怒哀樂의性·情氣 가운데서 후천적인性·情氣가 질병을 일으키는 痘因으로 작용되기 때

言之也. 曰然則 少陽人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樂性 傷目督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喜性 傷耳腦頤氣 樂情 傷肺胃腕氣乎.

43) 2-22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 樂性極則喜情動 喜性極則樂情動 太陽人 哀極不濟則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侈樂無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Table 1. 선천적인 藏理와 후천적인 心慾에 따른 선천적 및 후천적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구분

출 전	구 分	선천적인 藏理	후천적인 心慾
「性命論」	天人 天機(耳目鼻口) 人事(肺脾肝腎)	性命(知行) 性(頷臍臍腹) 命(頭肩腰臀)	
	好善之心 惡惡之心		邪心 惰心
	人皆可以爲堯舜		人皆自不爲堯舜
「四端論」	人稟藏理 太少陰陽人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浩然之氣		人趨心慾 鄙薄貪懶人 人慾之闊狹也 聖人與衆人 萬殊也 浩然之理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작용 肺脾肝腎의 臟局大小 形成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작용 喜怒哀樂의 暴動浪動으로 表裏病 발생
喜怒哀樂의 性·情氣			

문에 더욱 중시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는 心慾과 관련되어 있는 知行을 통한 性命과 道德의 완성을 이룬 성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sup>44)</sup> 「四端論」에서는 理氣의 차원으로一心이 浩然之理로서 四臟의 氣인 浩然之氣의 보다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天稟之已定의 선천적으로 性情의 작용으로 형성된 臟局大小는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가 불필요한 부분이지만, 후천적인 喜怒哀樂 性情의 未發과 已發을 恒戒하고 自反하여 中과 節에 이를 수 있도록 후천적인 知行이 필요하다고 하였고<sup>45)</sup>, 선천적으로 타고난 天稟의 臟理를 오로지 하는 것은 人事之修不修, 즉 知行의 여부에 따라 命이 결정된다고 하였다<sup>46)</sup>. 「臟腑論」에서는 心爲一身之主宰라고 하여 心의 작용을 중요시하였다.<sup>47)</sup>

결국 臟局의大小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性·情

氣의 작용은 天稟이므로 인간의 자율의지가 간섭될 여지가 없으므로 더 이상 논할 바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天稟인 臟局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후천적인 性·情氣의 작용은 바로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喜怒哀樂의 未發과 已發에 心慾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恒戒 自反해야 되며, 특히 후천적인 性·情氣이 痘因으로 작용하여 表裏病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더욱 警戒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 (2) 保命之主

甲午本에서는 壽命과 관련하여 太少陰陽人의 偏小之臟의 부위로 保命之主를 제시하고 있다<sup>48)</sup>. 太少陰陽人에서 각 保命之主가 역할을 하는 偏小之臟의 부위를 本으로 보고, 상대되는 偏大之臟의 부위를 標로 보았다(Table 2).

甲午本 痘證論에서 太少陰陽人の 保命之主에 영향을 끼치는 痘因으로는 앞서 언급된 喜怒哀樂의 心慾과 酒色 등이 제시되어 있다.

少陰人 少陰證에서 心之範圍의 有定無定에 따라서 치료에 따른 예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sup>49)</sup>.

44) 1-34 好人之善 而我亦知善者 至性之德也 惡人之惡 而我必不行惡者 正命之道也 知行積 則道德也 道德成 則仁聖也 道德非他 知行也 性命非他 知行也.  
45) 2-26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喜怒哀樂 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 喜怒哀樂 已發而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

46) 2-23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隱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天稟已定之外 又有短長 而不全其天稟者 則人事之修不修 而命之傾也 不可不慎也.

47) 4-17 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臍中 光明瑩徹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忖 頷臍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

48) 甲11-3 少陰人 以陽燉之氣 爲保命之主故 脾胃爲本 而 勝胱大腸爲標也. 少陽人 以陰清之氣 爲保命之主故 勝胱大腸爲本 而 脾胃之爲標也.

甲13-8 太陰人 以呼散之氣 爲保命之主故 腦顫胃脘爲本 而 腰脊小腸爲標. 太陽人 以吸聚之氣 爲保命之主故 腰脊小腸爲本 而 腦顫胃脘爲標.

Table 2. 太少陰陽人의 保命之主와 標本

太少陰陽人	保命之主	偏小之臟 本	偏大之臟 標
少陰人	陽煖之氣	腎胃	膀胱大腸
少陽人	陰清之氣	膀胱大腸	腎胃之爲
太陰人	呼散之氣	腦頤胃脘	腰脊小腸
太陽人	吸聚之氣	腰脊小腸	腦頤胃脘

少陽人 中消, 下消, 그리고 隱虛午熱에서 哀怒를 경계하고 酒色을 즐기를 당부하였고<sup>50)</sup>, 少陽人에서 裟性의 軟弱과 剛急을 哀心와 怒心과 연관지

49) 甲7-53 今考更定 朱肱所論藏厥 以心躁而論之也 少陰病最重證也. 李梃所論藏厥 以證躁而論之也 亦是少陰病重證而非最重證也. 少陰病發熱者 重證中輕證猶在也 少陰病自然能吐者 重證中輕證猶在也而 少陰病厥而吐利發躁者 同是一證也 用參附薑朮救之 則必無不救之理 實非真藏氣絕不治之證也 此證當用 桂附薑陳理中湯 菖歸葱蘇理中湯 心煩膈躁 爲少陰病主證而 其躁至於無暫定則 其證最重矣. 觀少陰病者 當觀於躁之有定無定也 欲觀躁之有定不定 則當觀心之範圍有定無定也 心之範圍 緋綽者 心之有定而 躁之有定也 心之範圍 耿耿者 心之無定而 躍之無定也 心雖耿耿忽忽 一半時刻 有綽綽卓卓時則 其病可治.

甲7-59 凡少陰人病 先觀其心而 次察大便也 若其心耿耿忽忽而 大便又清水則 痘在極危之地也 急用獨麥附子理中湯 若人參附子理中湯勢在難得則 白何首烏附子理中湯 亦必可用. 痘雖危重 自始發治之必無不治而 藥半功倍.

50) 甲10-27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陽人 隱虛火動胃熱肉爛之病 而 中消為此病之主證 上消則 中消之初證也 下消則 中消之未證也 面目口鼻咽喉牙齒之病則 中消之變證也 癰疽強中之病則 中消之危證也 治法宜早 宜急於上消中消 不可差緩太晚於下消癰疽強中 宜用 清涼散火湯 防風通聖散 阳毒白虎湯 必戒哀怒斷酒色.

甲10-31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陽人 隱虛火動大腸熱骨蒸之病而 其病繼始而又輕故可治也 不急治益危 當用 水火既濟湯 七味苦蔴湯 七味猪苓湯 六味地黃湯 必戒哀怒斷酒色.

甲10-32 論曰 下消強中 胃火肉爛之久病 隱虛午熱大腸火骨蒸之新病 皆數年調治服藥然後 可以免危療病而 下消強中者 當用 清涼散火湯 隱虛午熱者 當用 水火既濟湯 必戒哀怒斷酒色 此證之數年服藥調治者 一月之服不過十貼二十貼日一服 或十日服藥十日不服藥 或一月服藥一月不服藥 不服藥日則 必用藥豆海蔴石花豬內 或用童便生地黃忍冬藤苦蔴 因其飲食茶湯而雜試用之 或數月不服藥 蓋一月之服不過十貼二十貼日一服者 久病不可急治之故也 雜試用之飲食茶湯 亦萬藥理之故也 數月不服藥者 所恃者 不在藥之故也 若不戒哀怒不斷酒色 雖百日服藥而不足補損於一日苟望求活乎 飲食茶湯之萬藥者 必如平時飲食茶湯也 不可欲速不達而過食過飲也 過食過飲者 非自然也 非自然者 非生生之道也.

어 설명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 달라짐을 언급하고 있으며<sup>51)</sup>, 少陽人 吐血에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없애고 담백하게 식사하고 복약하라고 하였고<sup>52)</sup>, 少陽人 裏之裏病과 表之裏病은 喜怒哀樂이 眞氣를 內傷시켜 온다고 하였다<sup>53)</sup>.

太陰人 夢泄病은 그 병의 원인이 虛勞와 思慮로 인한 것이며 좋아하는 것을 금하고 侈樂을 경계하라고 하였다<sup>54)</sup>.

太陽人 腰脊病은 深哀와 噴怒를 경계하라고 하였고<sup>55)</sup>, 噴膈病은 噴怒를 경계하고 중탁한 음식을 끊으라고 하였다<sup>56)</sup>.

51) 甲11-14 少陽人 裟性軟弱者 多有陰虛午熱之證 裟性剛急者 多有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之證 此心疾也 雖有其藥 最爲難治.

甲11-15 少陽人 裟性軟弱則 哀心偏着也 哀心偏着則 大腸之真陰剝傷也 裟性剛急則 怒心偏復也 怒心偏復則 膀胱之真陰剝傷也 隱虛之始發 其人宜勇決也 其人勇決則 哀心蕩滌而其病易治也 風漸之始作 其人宜寬闊也 其人寬闊則 怒心蕩滌而其病易治也.

52) 甲11-20 少陽人 吐血者 必蕩滌憂愁心曲萬端機軸 淡食服藥修養如釋道 一周年然後 可保少愈 三周年然後 可保無虞 凡吐血病 調養失道則必再發 再發者前功皆歸於虛地 若再發則 又自再發日計數 至于三周年然後 可保無虞 若十年二十年調養則 必得高壽.

53) 甲11-10 少陽人 裏之裏病大綱有二 一曰 陰虛午熱也 二曰 傷寒諧語也.

甲11-12 表之裏病大目有五 一曰 中風 二曰 吐血 三曰 嘔吐 四曰 腹痛 五曰 食滯痞滿.

甲11-26 裡之裡病表之裡病則 喜怒哀樂之內傷真氣者 為主證故 實難專恃其藥力而 可以全恃其調養也 至於表之表病裡之表病則 藥效捷如影響 凡無論藥病 痘在表之表病裡之表病而 不急用藥而死者 痘人其壽甚長而 人中絕命者也 何以知其然耶 以少陰人藏結病少陽人鼓脹病 表氣已絕而猶一周年延命者觀之 則 此非病人其壽甚長而 孟浪死者耶 醫藥不可不知.

54) 甲13-7 太陰人一證 有夢泄病 其病爲虛勞而 思慮所傷也 太重且難不可不急治 必禁嗜欲戒侈樂 此證當用 清心山藥湯 清心蓮子湯加龍骨一錢.

55) 甲14-3 論曰 此證 卽太陽人 腰脊病 太重證也 必戒深哀 遠嗔怒 修清定然後 其病可愈 此證 當用五加皮壯脊湯.

甲午本에서는 草本卷의 命脈實數의 개념을 保命之主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서 少陰陽人에 적용을 시켰다고 보여지며, 喜怒哀樂의 性情에 대한 인식 또한 발전하여 실제 병증에서도 주요한 病因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酒色 등 외부적인 요인 또한 같이 언급이 된 것을 볼 때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 또한 病因으로 작용된다고 하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壽命과 酒色財權

앞서 草本卷에서 살펴보았던 減壽要因, 保命要因에 대한 내용이 甲午本에 이르러서는 「廣濟說」을 통하여 減壽要因과 得壽要因으로 언급되고 있다<sup>57)</sup>.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酒色財權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sup>58)</sup>, 恭敬해야 오래 살고, 慎慢하면 요절한다고 하였다<sup>59)</sup>. 또한 지역과 직업에 따라서도 得壽要因을 잘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다<sup>60)</sup>.

- 56) 甲15-4 論曰 此證 卽太陽人 小腸病太重證也 必遠嘔  
怒 斷厚味然後 其病可愈 此證 當用獮猴藤植腸湯.
- 57) 16-8 嬌奢減壽 懶怠減壽 偏急減壽 貪慾減壽. 爲人  
嬌奢 必耽侈色 爲人懶怠 必嗜酒食 爲人偏急 必爭  
權勢 爲人貪慾 必殉貨財.
- 16-9 簡約得壽 勤幹得壽 警戒得壽 聞見得壽. 爲人  
簡約 必遠侈色 爲人勤幹 必潔酒食 爲人警戒 必避  
權勢 爲人聞見 必清貨財.
- 58) 16-10 居處荒涼 色之故也 行身闊草 酒之故也 用心  
煩亂 權之故也 事務錯亂 貨之故也.
- 16-11 若敬淑女 色得中道 若愛良朋 酒得明德 若尚  
賢人 權得正術 若保窮民 貨得全功.
- 16-12 酒色財權 自古所戒 謂之四堵牆而比之牢獄  
非但一身壽夭 一家禍福之所繫也 天下治亂 亦在於此  
若使一天下酒色財權 無乖戾之氣則 庶幾近於堯  
舜周召南世矣.
- 59) 16-13 凡人簡約而勤幹 警戒而聞見 四材圓全者 自然上壽 簡約勤幹而警戒 或聞見警戒而勤幹 三材全者 次壽 嬌奢而勤幹 警戒而貪慾 或簡約而懶怠 偏急而聞見 二材全者 恭敬則壽 慎慢則夭.
- 16-14 凡人恭敬則必壽 慎慢則必夭 謹勤則必壽 虛  
貪則必夭 飢者之腸 急於得食 則腸氣蕩矣 貧者之  
骨 急於得財 則骨力竭矣 飢而安飢 則腸氣有守 貧  
而安貧 則骨力有立 是故 飲食 以能忍飢而不食飽 爲恭  
敬 衣服 以能耐寒而不食溫 爲恭敬 筋力 以能勤  
勞而不貪安逸 爲恭敬 財物 以能謹實而不貪苟得  
爲恭敬.
- 60) 16-15 山谷之人 沒聞見而禍夭 市井之人 沒簡約而禍  
天 農畝之人 沒勤幹而禍夭 讀書之人 沒警戒而禍夭  
16-16 山谷之人 宜有聞見 有聞見則福壽 市井之人  
宜有簡約 有簡約則福壽 鄉野之人 宜有勤幹 有勤  
幹則福壽 士林之人 宜有警戒 有警戒則福壽.  
16-17 山谷之人 若有聞見 非但福壽也 此人卽 山谷  
之傑也 市井之人 若有簡約 非但福壽也 此人卽 市  
井之傑也 鄉野之人 若有勤幹 非但福壽也 此人卽

甲午本에서도 草本卷에서는 주요한 病因으로  
다뤄졌던 酒色財權이나 人事의 不節에 대한 내용  
이 「廣濟說」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草本  
卷에서는 주요한 病因으로 인식하여 질환의 발생과  
연관지어 설명되었는데 비하여 甲午本에서는 실제  
少陰陽人의 痘證論을 설명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喜怒哀樂의 性情이 「四  
端論」, 「擴充論」 등을 통하여 痘證論을 논하기 이  
전에 주요한 病因으로서 설명되는 반면, 酒色財權  
과 人事의 不節은 痘證論을 논한 이후『東醫壽世  
保元』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廣濟說」에서 일반론  
적인 양생을 강조하는 내용으로만 언급이 되면서 주  
요한 病因으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진 것으  
로 생각된다.

결국 甲午本에 이르러서는 喜怒哀樂의 心慾이  
주요한 病因으로서 자리매김되고, 草本卷에서 주요  
한 病因으로 인식되었던 酒色財權이나 人事의 不節  
은 단순히 喜怒哀樂의 心慾으로 인한 결과라고 인  
식하였기 때문에 病因으로서의 의미가 축소되었다.  
懈怠한 사람이 술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心慾에 빠졌기 때문이고<sup>61)</sup>, 酒色이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心慾으  
로 인하여 이미 憂患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언급된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sup>62)</sup>. 그리고 「廣濟說」의 말미에 모든 질병은 妒  
賢嫉能으로 비롯되기 때문에, 好賢樂善으로서 질  
병을 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sup>63)</sup>, 이 또한 앞서 「性命  
論」, 「四端論」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修身立命, 存  
心養性의 知行을 통하여 心慾의 조절을 강조한 것

鄉野之傑也 士林之人 若有警戒 非但福壽也 此人  
卽 士林之傑也.

- 61) 16-20 懶怠者之心 極其麤猛 不欲積工之寸累 每有  
虛大之壅算 蓋其心 甚憚勤幹故 欲逃其身於酒國  
以姑避勤幹之計也. 凡懶怠者 無不縱酒 但見縱者  
則必知其為懶怠人心 麤猛也.

- 62) 16-21 酒色之殺人者 人皆曰 酒毒枯腸 色勞竭精云  
此 知其一 未知其二也. 縱酒者 畏勤其身 憂患如山  
惑色者 深愛其女 憂患如刀 萬端心曲 與酒毒色勞  
并力攻之而 殺人也.

- 63) 16-23 天下之惡 莫多於妬賢嫉能 天下之善 莫大於  
好賢樂善 不妬賢嫉能而為惡 則惡必不多也 不好賢  
樂善而為善 則善必不大也 歷稽往牒 天下之受病  
都出於妬賢嫉能 天下之救病 都出於好賢樂善 故曰  
妬賢嫉能 天下之多病也 好賢樂善 天下之大藥也.

Table 3. 甲午本의 表裏病의 구분

太少陰陽人	病因	表裏病	表裏之表裏病	表裏病證
少陰人	樂性	外感脅病論	表之表病	太陽病
			表之裏病	陽明病
	喜情	內觸胃病論	裏之表病	太陰病
			裏之裏病	少陰病
少陽人	怒性	外感膀胱病論	表之表病	浮腫 喘促 結胸 寒熱往來胸脇滿 發熱惡寒身體痛
			表之裏病	中風 吐血 嘴吐 腹痛 食滯痞滿
	哀情	內觸大腸病論	裏之表病	消渴 瘙痒
			裏之裏病	陰虛午熱 傷寒諭語
太陰人	喜性	外感腦傾病論	表之表病	惡寒發熱長感病
			表之裏病	陽毒燥澀
	樂情	內觸胃脘病論	裏之表病	腹痛自利食滯痞滿痢疾浮腫
			裏之裏病	虛勞夢泄 無腹痛中風
太陽人	哀性	外感腰脊病論		解㑊病
				噎膈病

과 상통된다.

#### (4) 甲午本의 篇名을 통해서 본 痘因에 대한 인식

앞서 草本卷에서는 酒色財權이 주요한 痘因으로 작용하여 外感, 內傷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이는 기준의 한의학적인 痘因과 表裏에 대한 개념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언급하였다.

甲午本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인식이 보다 발전하여 喜怒哀樂의 性情이 주요한 痘因으로 작용하여 表裏病을 일으킨다는 인식으로 발전되었다. 「太陽人 內觸小腸病論」에서 언급된 것처럼 哀怒喜樂의 性氣가 表氣를 손상시켜 表病이 생기고, 哀怒喜樂의 情氣가 裏氣를 손상시켜 裏病이 생긴다. 그리고 表病은 性氣가 外觸하여 背表(腦傾, 脊, 腰脊, 膀胱)에 발생한 병이며, 裏病은 情氣가 內傷하여 腹裏(胃脘, 胃, 小腸, 大腸)에 발생한 병이며, 太少陰陽人の 保命之主에서 本에 해당이 되는 偏小之臟의 부위를 발생하는 편명으로 사용하였다.

甲午本에서는 太少陰陽人の 表裏病을 保命之主에 따른 標本을 근거로 表病은 表之表病, 表之裏病으로, 裏病은 裏之表病, 裏之裏病으로 나누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이상과 같이 甲午本에서는 喜怒哀樂의 性情이 表裏病을 일으키는 주요 痘因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酒色財權이나 人事의 不節과 같은 외부적인 因子를 주요한 痘因으로 보았던 草本卷의 인식을 한단계 발전시켜 실제 痘證論에 적용시키고 있다.

하지만 甲午本의 痘證論에서는 喜怒哀樂의 性情에 대한 발전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外邪 또는 食積 등의 외부적인 原인으로 인하여 外感 또는 內傷이 생긴다는 기준의 한의학적인 痘因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언급들이 있다.

예를 들면 少陰人 外感脅病論의 太陽病을 설명하면서 外邪 혹은 寒邪<sup>64)</sup>라는 용어를 쓰면서 外感으로 인한 병증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그리고 內觸胃病論의 太陰病과 黃疸을 설명하면서 飲食物이 塞滯되어 消化가 되는지의 여부로 설명<sup>65)</sup>하면서 水

64) 甲6-28 論曰 張仲景所論 胃家實病 卽少陰人太陽病 外證盡除而陽氣其力不能振寒 遂爲窮困縮伏之證也。太陽外邪深入外束而 鬱陽內困則 胃中燥煩大便難而發狂者 其勢然也。此病 無惡寒者 非寒邪退却也 乃寒邪深入外束也。此病 當謂之太陽病。

65) 甲7-13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陰人下達腑腹大腸之胃氣虛弱 食物塞滯而一二三日內 新氣添積漸得快健則 終能變革消化 下利之證也。此證 當用理中湯 四順理中湯 厚朴半夏湯 四逆湯 而四逆之附子 不宜生用。赤石脂禹餘糧湯之赤石脂禹餘糧不宜單用。茵陳蒿湯 當去大黃梔子。瀉心湯 當去黃

穀에 의한 内傷으로 인한 병증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太陰人 痘證論에서 表裏之表裏病을 구분할 때도 表病은 長感病과 溫疫病에 해당되는 陽毒燥澁이 해당되는데 모두 外邪로 인하여 外感腦傾病이 발생한 것이며, 裏病은 腹痛自利나 食滯, 虛勞夢泄 등이 해당되는데 모두 水穀에 의한 内傷으로 内觸胃脘病이 발생한다고 본 점<sup>66)</sup>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外感 또는 内傷으로 인하여 表裏病이 생긴다는 기준의 한의학적인 痘因觀을 일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은 辛丑本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痘因의 인식이 발전하여 喜怒哀樂의 性情을 痘因으로 보는 시각으로 정립이 되는데 이후 辛丑本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 3. 辛丑本에서의 壽命과 痘因에 대한 인식

#### (1) 壽命과 喜怒哀樂

甲午本에서와 동일하게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가 주요한 痘因으로서 인간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은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太少陰陽人의 痘證論에서 喜怒哀樂의 性·情氣가 痘因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甲午本에서 보이는 外邪나 飲食物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痘因으로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少陰人 亡陽病 치험례에서 勞心焦思를 痘因으로 보고 있고<sup>67)</sup>, 少陰證 치험례에서 思慮와 憂愁

- 苓黃連. 藥不可以不盡善擇美則 別爲增附. 已上諸證當用 蔡香正氣散 香砂理中湯 香砂養胃湯 蔡朮破積湯 桂附蔡陳理中湯. 腹滿不減減不足言 身黃小便不利腹微溼汗出顎頸而還 此二證 有積滯也 當用 巴豆丹 下利二度 因以 蔡朮破積湯 香砂養胃湯 和解之. 甲7-27 今考更定 已上諸證 即少陰人下達膀胱大腸之胃氣虛弱 食物壅滯而歷三四日至五六七日 新氣雖則添積漸不快健 終不變革消化 下利之證也. 此證 當用 蔡陳橘皮湯 蔡陳四逆湯 瘡疽丸 又當用 茄歸葱蘇理中湯 桂附蔡陳理中湯. 已上諸證 諸家論中 熱家之黃 利小便之黃 女勞之黃 皆少陽人黃疸病也而 刪削之則 文脈不成 故並錄之 觀者詳之.
- 66) 甲13-9 太陰人 惡寒發熱長感病 爲表之表病 陽毒燥澁 爲表之裏病 腹痛自利食滯痞滿痢疾浮腫 爲裏之裏病 表裏之表病 虛勞夢泄與無腹痛中風 爲裏之裏病 表裏之表病 氣勢緩而易治 表裏之裏病 氣勢急而難治.
- 67) 6-32 賞治 少陰人 十一歲兒 汗多亡陽病 此兒 勞心焦思 素證 有時以泄瀉爲憂而 每飯時 汗流滿面矣. (中略)

를 痘因으로 보고 있고<sup>68)</sup>, 少陰證의 痘因을 “喜好不定”으로 설명하며 喜好가 바로 心慾에 해당된다고 하였다<sup>69)</sup>.

少陽人 亡陰證 치험례에서는 哀心怒心을 항상 警戒하기를 이르고 있고<sup>70)</sup>, 消渴證에서는 “不能寬遠闊達”과 “勞心焦思”를 痘因으로 제시하고 있고<sup>71)</sup>, 陰虛午熱證에서는 善攝身心하고 服藥을 해야 살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고<sup>72)</sup>, 吐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剛復하고 偏急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으며<sup>73)</sup>, 中風과 吐血의 병은 服藥보다도 調養이 우선이라고 하였다<sup>74)</sup>.

- 68) 7-36 賞見 少陰人 十歲兒 思慮耗氣 每有憂愁 一二日 則必腹痛泄瀉 (中略)
- 69) 7-39 論曰 少陰人 喜好不定 而計窮力屈 則心煩躁也 少陰病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者 此非計窮力屈者之病乎 蓋喜好者 所慾也 何故 至於計窮力屈 而得此少陰病乎 何不早用君子寬平心乎 然 初證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者 早用藥 則猶可免死也 其病 至於躁無暫定而厥 則勢在極危也 豈不可憐乎 此證 當用 莼莫湯 四逆湯 官桂附子理中湯 莼莫萸附子理中湯.
- 70) 9-30 賞見 少陽人 恒有腹痛患者者 用六味地黃湯 六十貼 而病愈 又見 少陽人 十餘年 腹痛痛苦 一次起痛 則或五六個月 或三四個月 一二個月 叫苦者 每起痛臨時 急用滑石苦參湯 十餘貼 不痛時 平心靜慮 恒戒哀心怒心 如此延拖 一周年而病愈 又見少陽人 少年兒 恒有滯證痞滿 間有腹痛腰痛 又有口眼喝斜 初證者 用獨活地黃湯 一百日內 二百貼服 使之平心靜慮 恒戒哀心怒心 一百日 而身健病愈.
- 71) 10-17 論曰 消渴者 痘人胸次 不能寬遠闊達 而陋固膠小 所見者淺 所欲者速 計策鶻突 意思艱乏 則大腸清陽 上升之氣 自不快足 日月耗困 而生此病也. 胃局清陽 上升 而不快足於頭面四肢 則成上消病 大腸局清陽 上升 而不快足於胃局 則成中消病 上消 自爲重證 而中消 倍重於上消 中消 自爲險證 而下消 倍險於中消. 上消 宜用涼膈散火湯 中消 宜用忍冬藤地骨皮湯 下消 宜用熟地黃苦參湯 尤宜寬闊其心 不宜膠小其心 寬潤 則所欲必緩 清陽上達 膠小 則所欲必速 清陽下耗.
- 10-18 平心靜思 則陽氣上升輕清 而充足於頭面四肢也 此 元氣也 清陽也 勞心焦思 則陽氣下陷重濁 而鬱熱於頭面四肢也 此 火氣也 耗陽也.
- 72) 10-28 論曰 上消中消 裏陽升氣 雖則虛損 表陰降氣 猶恃完壯故 其病雖險 猶能歲月支撐者 以此也 若夫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者 表裡陰陽 俱爲虛損 所以爲病 尤險與下消 略相輕重 然 能善攝身心服藥 則十之六七 尚可生也 不善攝身心服藥 則百之百 必死也 此證 當用 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
- 73) 11-3 少陽人 吐血者 必蕩滌剛復偏急 與人並驅爭塗之 淡食服藥 修養如釋道 一百日 則可以少愈 二百日 則可以大愈 一周年 則可以快愈 三周年 則可保其壽. 凡吐血 調養失道 則必再發 再發則前功皆歸於虛地 若再發者 則又自發日 計數 一百日 少愈 一周年 快愈 若十年 二十年 調養 則必得高壽.
- 74) 11-5 中風 受病太重故 治法不可期必 吐血 受病猶

또한 太陰人 長感病과 浮腫病의 痘因은 “勞心 焦思”로 생긴다고 하였고<sup>75)</sup>, 燥熱病의 原因은 “侈樂無厭 慾火外馳”로 인하여 생기므로 慾火를 없애야 함을 강조하였고<sup>76)</sup>, 腹脹浮腫病은 “侈樂”으로 생긴다고 하였고<sup>77)</sup>, 夢泄病은 “謀慮太多 思想無窮”으로 생긴다고 하였다<sup>78)</sup>.

## (2) 保命之主

甲午本에서 언급된 保命之主라는 개념이 辛丑本에서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甲午本에서처럼 保命之主를 標本으로 구분하여 表裏의 表裏病으로 나눈 것처럼 定型化시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保命之主의 개념이 辛丑本 곳곳에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少陰人 痘證論에서는 脾受熱表熱病의 鬱狂證과 亡陽證을 설명하면서 소음인의 偏小之臟인 脾約과 胃實로 설명하고 있으며<sup>79)</sup>, 그 치

輕故 治法可以期必 中風 吐血 調養爲主 服藥次之 嘔吐以下 腹痛 食滯痞滿 服藥調養 則其病易愈。

- 75) 12-5 太陰人病 寒厥六七日 而不發熱不汗出 則死也。寒厥二三日 而發熱汗出 則輕證也 寒厥四五日 而發熱 得微汗於額上者 此之謂長感病 其病爲重證也。此證原委 勞心焦思之餘 胃脫衰弱 而表局虛薄不勝寒 而外被寒邪所圍 正邪相爭之形勢客勝主弱 (中略)  
 13-36 凡太陰人病 若待浮腫已發而治之 則十病九死也 此病 不可以病論之而以死論之可也 然則如之何其可也。凡太陰人 勞心焦思 屢謀不成者 或有久泄久痢 或麻病小便不利 食後痞滿 腿脚無力病皆浮腫之漸 已爲重險病 而此時 以浮腫論 而蕩滌慾火 恭敬其心 用藥治之 可也。  
 76) 13-25 此病 非必不治之病也 此少年 得病用藥一周年後 方死 蓋此病原委 侈樂無厭 慾火外馳 肝熱大盛 肺燥太枯之故也。若此少年 安心涤慾一百日 而用藥 則焉有不治之理乎。蓋自始病日 至于終死日 慾火無日不馳故也。諺曰 先祖德澤 雖或不得一一個報 而恭敬德澤 必無一一不受報 凡無論某病人恭敬其心 蕩滌慾火 安靜善心 一百日 則其病無不愈 二百日 則其人無不完 恭敬德澤之個個受報 百事皆順 而疾病尤甚。

- 77) 13-35 太陰人 有腹脹浮腫病 當用乾栗鱠膏湯 此病極危險證 而十生九死之病也 雖用藥病愈 三年內不再發然後 方可論生 侈樂禁嗜慾 三年內 宜恭敬心身 調養慎攝 必在其人矣。

- 78) 13-37 太陰人證 有夢泄病 一月內 三四發者 虛勞重證也 大便秘一日 則宜用熱多寒少湯 加大黃一錢 大便每日不秘 則加龍骨 減大黃 或用拱辰黑元丹 鹿茸大補湯。此病 出於謀慮太多 思想無窮。

- 79) 6-20 (中略) 蓋少陰人病候 自汗不出 則脾不弱也 大便秘燥則 胃實也 (中略)

6-38 胃家實病 其始焉 汗不出 不惡寒 但惡熱而其病垂危則 潑然微汗出 潑熱也 潑然微汗出潮熱者

법으로 益氣升陽로 설명하고 있는 점<sup>80)</sup>, 그리고 胃受寒裏寒病의 太陰證과 少陰證은 모두 胃氣의 虛弱에서 비롯되며, 그 치법을 溫胃와 健脾로 설명한 점<sup>81)</sup>, 人蔘陳皮湯에서 溫胃逐冷之力을 언급한 점<sup>82)</sup>, 白何烏理中湯에서 人蔘과 白何烏를 비교하면서 清越之力와 溫補之力을 언급한 점<sup>83)</sup>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脾, 胃, 陽氣, 清越之力, 溫補之力 등은 모두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緩之氣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少陽人 痘證論에서는 少陽人 少陽傷風證에서 治法으로 降表陰을 제시한 점<sup>84)</sup>, 亡陰證에서 表陰이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승해서 병이 생긴다고 한 점<sup>85)</sup>, 胸膈熱證에서 胃熱이 심해지면 清陽

表寒振發之力 永竭故也 胃竭之候也 脾約病 其始焉 身熱 汗自出 不惡寒而若其病垂危則 發熱汗多而惡寒也 發熱汗多而惡寒者 裏熱擣支之勢 已窮故也 脾絕之候也。

- 80) 6-12 張仲景所論 下焦寒證 即少陰人 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 脾局陽氣爲邪所拒 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中略) 此證 益氣而升陽則 得其上策 也破血而解熱則 出於下計也。(中略)

- 81) 7-11 論曰 痘發於陰 而反下之云者 痘發於胃弱 當用藿香正氣散 而反用大黃下之之謂也 麻黃大黃 自是太陰人藥 非少陰人藥 則少陰人病 無論表裏 麻黃大黃 汗下元非可論。少陰人病 下利清穀者 積滯自解也 太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少陰證 下利清穀者 當用官桂附子理中湯 健脾而降陰。

- 82) 人蔘陳皮湯 人蔘 一兩 生薑 砂仁 陳皮 各一錢 薑二枚 本方 以炮乾薑 易生薑 又加桂皮 一錢 則尤有溫胃逐冷之力 以本方 評治 未周年人 小兒陰毒慢風 連服數日 痘快愈矣 痘愈後 更不服藥 再發不治。

- 83) 白何烏理中湯 白何首烏 白朮 白芍藥 桂枝 乾薑炮各二錢 陳皮 甘草灸 各一錢 有人蔘 則用人蔘 無人蔘 則用白何首烏 白何首烏與人蔘 性昧相近 而清越之力不及 溫補之力 過之不無異同之處 險病 危證 人蔘二錢以上 不可全恃白何首烏代用 古方 經驗不多 藥材生疎 故也 然此一味 必不可遺棄於補藥中 而古方 何人飲 用白何首烏五錢 治瘡病

- 84) 9-8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咽乾 胸脇滿 或往來寒熱之證 即 少陽人 脾局陰氣爲熱邪所陷 而脾局陰氣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脾局 而凝聚脅間 壓固囚滯之病也。(中略) 此證 清裏熱 而降表陰 則痰飲自散 而結胸之證 預防不成也 清痰而燥癥 則無益於陰降痰散 延拖結胸 將成而或別生奇證也。

- 85) 9-32 亡陽者 陽不上升 而反爲下降 則亡陽也 亡陰者 陰不下降 而反爲上升 則亡陰也 陰盛格陽於上 則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 而外逼膀胱故 背表煩熱而汗出也 煩熱而汗出者 非陽盛也 此所謂內炭外冰 陽將亡之兆也 陽盛格陰於下 則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脅 而內逼膈裡故 腸胃畏寒而泄下者 畏寒而泄下者 非陰盛也 此所謂內炭外冰 陰將亡之兆也。

이 없어진다고 한 점<sup>86)</sup>, 消渴證에서 清陽이 올라가지 못해서 병이 생긴다고 한 점<sup>87)</sup>, 鼓脹病에서 裏陽清氣와 表陰清氣를 언급한 점<sup>88)</sup>, 新定 少陽人病應用要藥 十七方 가운데 荊防地黃湯을 설명하면서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이 모두 補陰藥이라고 언급한 점<sup>89)</sup>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表陰, 清陽, 清氣, 補陰 등은 모두 少陽人의 保命之主인 隅清之氣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太陰人 痘證論에서는 長感病이 胃脘의 衰弱으로 인하여 병이 생기며 汗出로서 병의 예후를 판단한 점, 胃脘寒證의 素證으로 憤忡, 無汗, 氣短, 頸結咳가 있고, 溫疫이 太陰調胃湯 加味方을 사용한 후 汗出이 나면서 병이 낫는다는 점, 燥熱證이 肺燥로 기인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胃脘, 肺, 汗出, 頸結咳 등은 모두 太陰人의 保命之主인 呼散之氣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辛丑本에서 保命之主를 중심으로 한 少陰人과 少陽人의 病理에 관해서는 痘理論의 고찰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辛丑本의 篇名을 통해서 본 痘因의 인식

甲午本에서는 表病은 哀怒喜樂의 性氣가 外觸하여 背表에 발생한 痘이며, 裏病은 情氣가 內傷하여 腹裏(胃脘, 胃, 小腸, 大腸)에 발생한 병으로 보았으며, 太少陰陽人の 保命之主에서 本에 해

86) 10-9 少陽人 胃受熱 則大便燥也 脾受寒 則泄瀉也。故 亡陰證 泄瀉二三日 而大便秘 一晝夜 則清陰將亡 而危境也 胃熱證 大便 三晝夜不通 而汗出 則清陽將竭 而危境也。

87) 10-17 諭曰 消渴者 痘人胸次 不能寬闊闊達 而陋固膠小 所見者淺 所欲者速 計策鶻突 意思艱乏 則大腸清陽 上升之氣 自不快足 日月耗困 而生此病也。胃局清陽 上升 而不快足於頭面四肢 則成中消病 大腸局清陽 上升 而不快足於胃局 則成中消病 上消自爲重證 而中消 倍重於上消 中消 自爲陰證 而下消 倍險於中消。上消 宜用涼膈散火湯 中消 宜用忍冬藤地骨皮湯 下消 宜用熟地黃苦參湯 尤宜寬闊其心 不宜膠小其心 寬闊 則所欲必緩 清陽上達 膠小 則所欲必速 清陽下耗。

88) 11-8 少陽人 中消者 腹脹 則必成鼓脹 鼓脹不治 少陽人 鼓脹病 如少陰人 藏結病 皆經歷五六七八月 或周年而竟死 蓋少陰人 藏結 表陽溫氣 雖在幾絕裡陰溫氣 猶待完壯 少陽人 鼓脹 裡陽清氣 雖在幾絕 表陰清氣 猶待完壯 故皆經歷久遠 而死也。

89) 荆防地黃湯 熟地黃 山茱萸 茯苓 潤澤各二錢 車前子 羌活 獨活 荆芥 防風 各一錢 (中略) 荆芥 防風 羌活 獨活 俱是補陰藥 荆防 大清胸膈散風 羌獨 大補膀胱真陰

당이 되는 偏小之臟의 부위를 발생하는 편명으로 사용하였고, 세부적으로 痘證을 表裏之表裏病으로 구분하였다. 喜怒哀樂의 性·情氣가 痘因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外邪나 水穀으로 인한 外感內傷이라는 기준의 한의학적인 痘因의 개념을 일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처럼 定型化된 表裏之表裏病의 구분을 벗어나 보다 발전된 表裏病의 인식을 바탕으로 篇名이 재설정되었다(Table 4).

새롭게 改抄되지 않은 太陽人 痘證論을 제외하고 辛丑本의 篇名을 자세하게 고찰해 보면 甲午本과의 차이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겠다.

첫째, 甲午本에서 사용된 外感이나 內觸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기준의 한의학적인 痘因과 같이 外邪나 水穀으로 인한 外感, 內傷으로 表裏病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완전히 탈피하여 辛丑本에 이르러서는 四象醫學 고유의 表裏病의 개념으로 더욱 발전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少陰人의 脾受熱表熱病에서 “脾受熱”은 表病인 鬱狂證, 亡陽證은 모두 脾陽이 脾局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 공통된 痘理<sup>90)</sup>를 가지고, 胃受寒裏寒病에서 “胃受寒”은 裏病인 太陰證, 少陰證은 모두 胃弱으로 인하여 大腸으로 降陰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 공통된 痘理<sup>91)</sup>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표현한 것이다.

少陽人의 脾受寒表寒病에서 “脾受寒”은 表病인 少陽傷風證, 結胸證, 亡陰證은 모두 脾陰(表陰)이 脾局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 공통된 痘理<sup>92)</sup>를 가지고, 胃受熱裏熱病에서 “胃受

90) 6-12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卽少陰人 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 脾局陽氣爲邪所拒 不能直升 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中略)

91) 7-11 諭曰 痘發於陰 而反下之云者 痘發於胃弱 當用藿香正氣散 而反用大黃下之之謂也 麻黃大黃 自是少陰人藥 非少陰人藥 則少陰人病 無論表裏 麻黃大黃 汗下 元非可論 少陰人病 下利清穀者 積滯自解也 太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少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官桂附子理中湯 健脾而降陰。

92) 9-8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咽乾 胸脇滿 或往來寒熱之證 卽 少陽人 脾局陰氣爲熱邪所陷 而脾局陰氣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 而凝聚脅間 膜固囚滯之病也。(中略)

Table 4.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篇名의 變화와 차이점

太少陰陽人	病因	甲午本	辛丑本	甲午本과 辛丑本의 篇名의 차이점	
樂性	外感督病論	腎受熱表熱病	外感 → 腎受熱 督 → 表 寒熱의 표현이 없음 → 热	外感 → 腎受熱 督 → 表 寒熱의 표현이 없음 → 热	
少陰人				內觸 → 胃受寒	
喜情	內觸胃病論	胃受寒裏寒病	胃 → 裏 寒熱의 표현이 없음 → 寒	胃 → 裏 寒熱의 표현이 없음 → 寒	
少陽人				外感 → 脾受寒 膀胱 → 表 寒熱의 표현이 없음 → 寒	
怒性	外感膀胱病論	脾受寒表寒病	內觸 → 胃受寒 大腸 → 裏 寒熱의 표현이 없음 → 热	內觸 → 胃受寒 大腸 → 裏 寒熱의 표현이 없음 → 热	
哀情				外感 → 胃院受寒 腦頤 → 表 寒熱의 표현이 없음 → 寒	
太陰人	喜性	外感腦頤病論	胃院受寒表寒病	內觸 → 肝受熱 胃院 → 裏 寒熱의 표현이 없음 → 热	內觸 → 肝受熱 胃院 → 裏 寒熱의 표현이 없음 → 热
樂情					
太陽人	哀性	外感腰脊病論	外感腰脊病論	改抄되지 않음	改抄되지 않음
怒情		內觸小腸病論	內觸小腸病論		

熱”은 裏病인 胸膈熱證, 消渴證, 陰虛午熱證은 모두 清陽이 頭面四肢 또는 胃局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 공통된 痘理<sup>93)</sup>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표현한 것이다.

太陰人의 胃院受寒表寒病에서 “胃院受寒”은 表病인 背頤表病, 長感病, 胃院寒證은 모두 肺局에 해당되는 背表와 胃院의 呼散之氣가 通外하지

93) 10-9 少陽人 胃受熱 則大便燥也 脾受寒 則泄瀉也. 故 亡陰證 泄瀉二三日 而大便秘 一晝夜 則清陰將亡 而危境也 胃熱證 大便 三晝夜不通 而汗出 則清陽將竭 而危境也.

10-17 論曰 消渴者 痘人胸次 不能寬達闊達 而陋固膠小 所見者淺 所欲者速 計策鶻突 意思艱乏 則大腸清陽 上升之氣 自不快足 日月耗困 而生此病也. 胃局清陽 上升 而不快足於頭面四肢 則成上消病 大腸局清陽 上升 而不快足於胃局 則成中消病 上消自爲重證 而中消 倍重於上消 中消 自爲險證 而下消 倍險於中消. 上消 宜用涼膈散火湯 中消 宜用忍冬藤地骨皮湯 下消 宜用熟地黃苦參湯 尤宜寬闊其心 不宜膠小其心 寬闊 則所欲必緩 清陽上達 膜小 則所欲必速 清陽下耗.

못하는 데서 출발한 공통된 痘理<sup>94)</sup>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표현한 것이다. 肝受寒裏熱病에서 “肝受熱”은 裏病인 肝熱證, 燥熱證은 모두 肝熱로 인하여 肺局의 呼散之氣가 通外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 공통된 痘理<sup>95)</sup>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표현한 것이다.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의 定型化되고 개념적인 表裏病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실증적인 少太陰陽人の 表裏病으로 발전된 痘理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甲午本에서는 腹背表裏에서 保命之主에 해당되는 本의 部位를 篇名에서 언급을 하였는데 비하여 辛丑本에서는 단순히 表 또는 裏라고만 표현

94) 12-5 太陰人病 寒厥六七日 而不發熱不汗出 則死也. 寒厥二三日 而發熱汗出 則輕證也 寒厥四五日 而發熱 得微汗於額上者 此之謂長感病 其病 為重證也. 此證原委勞心焦思之餘 胃院衰弱 而表局虛薄不勝寒 而外被寒邪所圍 正邪相爭之形勢 客勝主弱 (中略)

95) 13-25 此病 非必不治之病也. 此少年 得病用藥一周年後 方死 蓋此病原委 多樂無厭 慾火外馳 肝熱大盛 肺燥太枯之故也. (中略)

하였다.

甲午本에서는 偏小之臟의 腹背表裏의 부위와 標本에 따라서 表病과 裏病을 구분하고자 하는 定型화된 접근을 하였으나, 甲午本 이후 실증적인 임상을 통해 다양한 증상과 치료에 대한 경험이 쌓여 表裏病에 대한 이해와 분류가 정밀해지면서 標本이라는 단순한 부위가 表裏病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여 表와 裏의 용어만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에서처럼 標本의 부위의 개념으로 表裏病을 접근하지 않고, 背表와 腹裏의 구분만을 表裏病의 구분 기준으로 삼았다.

셋째, 甲午本에서는 表裏病을 寒熱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지 않았는데, 辛丑本에서는 表裏病이 구분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寒熱의 개념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甲午本에서는 表裏病 구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標本의 부위를 삼았다면, 辛丑本에서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寒證 또는 热證의 양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改抄된 세부 병증을 살펴보면, 각 병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寒熱에 따라서 表病과 裏病으로 구분되어 재편되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甲午本 太陰人 痘證論에서 表裏病의 구분은 寒熱의 구분이 없이 表裏의 발병부위를 기준으로 惡寒, 發熱 등의 外感의 증상이 나타나는 長感病과 陽毒燥澀을 表病으로, 腹痛, 泄瀉, 食滯痞滿 등의 內傷의 증상이 나타나는 腹痛自利食滯痞滿痢疾浮腫과 虛勞夢泄與無腹痛中風를 裏病으로 구분하고 있다<sup>96)</sup>. 이에 비하여 辛丑本의 太陰人 痘證論에서는 寒症을 기준으로 하여 惡寒不發熱의 증상을 주로 하는 長感病<sup>97)</sup>, 素證으로 얼굴이 회고 表寒或泄이 있는 胃脘寒證<sup>98)</sup>, 寒症을 위주로 하는 久泄, 久痢, 瘦病小便

不利, 食後痞滿腿脚無力病과 같은 浮腫之漸<sup>99)</sup> 등을 胃脘受寒表寒病으로 구분했고, 热症을 기준으로 하여 평소에 眼病과 같은 热證이 있는 肝熱證<sup>100)</sup>, 얼굴색이 평소에 黃赤黑한 燥熱證<sup>101)</sup> 등을 肝受熱裏熱病으로 구분한다. 더 나아가서 寒熱을 기준으로 表病과 裏病을 구분하려는 인식이 素病의 寒熱에 따라서 痘證의 寒熱과 表裏를 구분하고자 하는 방법<sup>102)</sup>, 그리고 평소의 얼굴색에 따라서 痘證의 寒熱과 表裏를 구분하고자 하는 방법<sup>103)</sup>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辛丑本에서는 改抄되지 않은 太陽人을 제외한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表病과 裏病은 모두 寒 또는 热의 형태로 발현되므로 동일한 四象人 痘證에서 表裏病의 구분은 痘症의 寒熱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素證 또는 素病의 寒證과 热證이 痘證의 寒證과 热證으로 각각 발생하도록, 素證 또는 素病의 寒熱의 구분을 통해서 痘證의 表裏病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胃脘寒也 此病 表裏俱病 素病之太重者也. (中略)

99) 13-36 凡太陰人病 若待浮腫已發而 治之則 十病九死也 此病 不可以病論之而 以死論之可也. 然則如之何其可也. 凡太陰人 勞心焦思 屢謀不成者 或有久泄久痢 或麻病小便不利 食後痞滿 腿腳無力病皆浮腫之漸 已爲重險病 而此時 以浮腫論 而蕩滌慾火 恭敬其心 用藥治之 可也.

100) 13-13 蔡治 太陰人 肝熱熱證 瘟病 有一太陰人素病 數年來 眼病 時作時止矣 此人 得瘟病 自始發日 用熟多寒少湯 三四五日 大便 或滑或泄 至六日 有大便 一日不通之證 仍用葛根承氣湯 連三日 粥食大倍 又用三日 瘦氣大減 痘解後 復用熟多寒少湯 大便燥澀 則加大黃 一錢 滑泄太多 則去大黃 如此調理二十日 其人完健.

101) 13-18 論曰 太陰人 面色青白者 多無燥證 面色黃赤黑者 多有燥證 蓋肝熱肺燥而然也.

102) 12-12 大凡瘟疫 先察其人素病如何 則表裏虛實可知已 素病寒者 得瘟病 則亦寒證也 素病熱者 得瘟病 則亦熱證也 素病輕者 得瘟病 則重證也 素病重者 得瘟病 則險證也.

103) 13-38 太陰人證 有卒中風病 胸臆格格 有窒塞聲 而目瞪者 必用瓜蒂散 手足拘攣 眼合者 當用牛黃清心丸 素面色黃赤黑者 多有目瞪者 素面色青白者 多有眼合者 面色青白而眼合者 手足拘攣 則其病急危也 不必待拘攣 但見眼合 而素面色青白者 必急用清心丸 古方清心丸 每每神效 目瞪者 亦急發而稍緩死 眼合者 急發急死 然 目瞪者 亦不可以緩論 而急治之.

瓜蒂散 瓜蒂 炒黃爲末 三五分 溫水調下 或 乾瓜蒂一錢 急煎湯用 ○ 面色青白而素有寒證 表虛者 卒中風 則當用 熊膽散 牛黃清心丸 石菖蒲遠志散 而不可用瓜蒂散.

96) 甲13-9 太陰人 惡寒發熱長感病 為表之表病 陽毒燥澀 為表之裏病 腹痛自利食滯痞滿痢疾浮腫 為裏之表病 虛勞夢泄與無腹痛中風 為裏之裏病. 表裏之表病 氣勢緩而易治 表裏之裏病 氣勢急而難治.

97) 12-4 論曰 此謂之厥者 但惡寒不發熱之謂也 非手足厥逆之謂也. (中略) 此證 首尾幾近二十日 凡寒厥六七次而後病解也 此證 俗謂之長感病 凡太陰人病 先額上眉稜 有汗 而一汗病不解 屢汗病解者 名曰長感病.

98) 12-13 有一太陰人素病 咽嗌乾燥 而面色青白 表寒或泄 蓋咽嗌乾燥者 肝熱也 面色青白 表寒或泄者

## IV. 考 察

이상과 같이 인간의 壽命을 결정하는 四象人の 正氣, 그리고 正氣를 손상시키는 痘因에 관한 인식을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의 시대순으로 살피고, 이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四象醫學의 壽命와 痘因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草本卷에서는 太少陰陽人の 壽命은 命脈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 命脈을 손상시키는 痘因으로 喜怒哀樂, 人事의 不節, 酒色財權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痘因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酒色財權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酒色財權이 內傷 또는 外觸하여 太少陰陽人の 命脈을 손상시킴으로써 모든 질병을 일으키므로 가장 중요한 痘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太少陰陽人은 喜怒哀樂의 心慾으로 인하여 酒色財權의 不節이 야기되며, 酒色財權의 不節로 인하여 人事의 不節(居處荒涼, 行身闊舊, 用心煩滿, 事務錯亂)이 야기된다. 그러므로 酒色財權이 內傷 또는 外觸하여 命脈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결국 酒色財權에 해당되는 飲食, 衣服, 筋力, 財物의 不節과 人事의 不節이 痘因으로 작용하여 內傷으로 裏氣內損하거나 外感하여 表氣外虧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草本卷에서는 太少陰陽人の 命脈에 손상을 주는 痘因으로 喜怒哀樂의 心慾에 대한 인식은 이미 있었으나 喜怒哀樂의 心慾을 질병의 주요한 痘因으로 설명하지 않고, 酒色財權과 人事의 不節이라는 외부적인 인자를 주요한 痘因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外感, 內傷”과 “表氣, 裏氣”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기준한 의학적인 痘因과 表裏의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한의학에서 痘因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喜怒哀樂의 心慾과 酒色財權 및 人事의 不節을 草本卷을 통해서 제시하였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甲午本에서도 草本卷에서 주요한 痘因으로 다뤄졌던 酒色財權이나 人事의 不節에 대한 내용이 「廣濟說」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草本卷에서는 주요한 痘因으로 인식하여 질환의 발생과 연관지어 설명되었는데 비하여 甲午本에서는 실제 太少陰陽

人の 痘證論을 설명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喜怒哀樂의 性情이 「四端論」, 「擴充論」 등을 통하여 痘證論을 논하기 이전에 주요한 痘因으로서 설명되는 반면, 酒色財權과 人事의 不節은 『東醫壽世保元』의 후반부인 「廣濟說」에 위치하여 일반론적인 양생을 강조하는 내용으로만 언급이 되면서 주요한 痘因으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甲午本에 이르러서는 喜怒哀樂의 心慾이 주요한 痘因으로서 자리매김되고, 草本卷에서 주요한 痘因으로 인식되던 酒色財權이나 人事의 不節은 단순히 喜怒哀樂의 心慾으로 인한 결과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痘因으로서의 의미가 축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甲午本에서는 痘의 原因이 외부적으로 오는 風寒暑濕의 外邪로 인한 外感이나 脾胃水穀으로 인한 內觸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喜怒哀樂의 偏着으로 인하여 오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喜怒哀樂의 性情이 주요한 痘因으로 작용하여 表裏病을 일으킨다는 인식으로 발전되었으며, 甲午本에서는 太少陰陽人の 表裏病을 保命之主에 따른 標本을 근거로 表病은 表之表病, 表之裏病으로, 裏病은 裏之表病, 裏之裏病으로 나누고 있다. 甲午本에서는 喜怒哀樂의 性情이 表裏病을 일으키는 주요 痘因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酒色財權이나 人事의 不節과 같은 외부적인 因子를 주요한 痘因으로 보았던 草本卷의 인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실제 痘證論에 적용시키고 있다. 하지만 甲午本의 痘證論을 살펴보면 喜怒哀樂의 性情에 대한 발전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外邪 또는 食積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外感 또는 內傷으로 인하여 表裏病이 생긴다는 기존의 한의학적인 痘因觀을 일부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辛丑本에서는 太少陰陽人の 痘證論에서 喜怒哀樂의 性・情氣가 痘因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甲午本에서 보이는 外邪나 飲食物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痘因으로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에서처럼 保命之主를 標本으로 구분하여 表裏의 表裏病으로 나눈 것처럼 定型화시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保命之主의 개념이 辛丑本 곳곳에서 그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처럼 定型化된 表裏之表裏病의 구분을 벗어나 보다 발전된 表裏病의 인식을 바탕으로 篇名이 제설정되었다. 甲午本에서 사용된 外感이나 內觸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기존의 한의 학적인 痘因과 같이 外邪나 水穀으로 인한 外感, 內傷으로 表裏病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벗어나 辛丑本에 이르러서는 四象醫學 고유의 表裏病의 개념으로 더욱 발전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에서처럼 標本의 부위의 개념으로 表裏病을 접근하지 않고, 背表와 腹裏의 구분만을 表裏病의 구분 기준으로 삼았다. 辛丑本에서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寒證 또는 热證의 양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甲午本에서 辛丑本으로 改抄된 세부 병증을 살펴보면, 각 병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寒熱에 따라서 表病과 裏病으로 구분되어 재편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 다뤄진 四象醫學의 痘因에 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四象醫學의 表裏病의 痘機와 痘理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V. 結論

이상의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草本卷에서는 太少陰陽人의 命脈을 손상시키는 痘因으로 喜怒哀樂, 人事의 不節, 酒色財權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酒色財權이 內傷 또는 外觸하여 太少陰陽人の 命脈을 손상시킴으로써 모든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여 酒色財權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을 중요한 痘因으로 인식하고 있다.
2. 甲午本에서는 草本卷에서의 酒色財權이나

人事의 不節이라는 痘因의 인식이 발전하여 喜怒哀樂의 心慾이 주요한 痘因으로서 자리매김되었으며, 喜怒哀樂의 性情이 表裏病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外邪 또는 食積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外感 또는 內傷으로 인하여 表裏病이 생긴다는 기존의 한의학적인 痘因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辛丑本에서는 喜怒哀樂의 性·情氣가 痘因으로 작용하여 表裏病이 발생된다는 진일보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草本卷, 甲午本에서 보이던 外感, 內傷으로 表裏病이 발생한다는 외부적인 痘因의 인식을 탈피하여 四象醫學 고유의 痘因과 表裏病의 개념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VI. 參考文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2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서울, 2005.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2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서울, 2005.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2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서울, 2005.
4. 곽창규, 손은혜,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四象人體質病證 중 表病과 裏病의 개념규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1-11.
5. 황민우,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武 李濟馬의 心慾과 性情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 16(2):17-31.